

‘정권 심판론’에 유권자들 공감... 힘있는 ‘인물론’도 주효



문대림 후보의 국회 입성은 입증된 능력과 경험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골목 유세로 유권자를 만나는 정책선거가 김한규 후보의 재선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위성곤 후보의 당선엔 세대별, 분야별뿐만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공약이 효과를 봤다.

능력·경험 바탕으로 진정성 소통 주효

제주시갑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당선인의 4·10 총선 득표율은 압도적이었지만, 당선까지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후 세번째 도전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다.

문 당선인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조직관리실장을 맡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우며 중앙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비서실제도개선비서관에 임명돼 중앙정치와 행정 경험을 쌓았다.

또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지내며 각종 사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입증된 능력과 경험이 이번 총선에서 드디어 꽃을 피웠다는 평가다.

문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구 전역을 누비며 지지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

약 수행을 약속한 것이 유권자 표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의도 입성을 향한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 견제론’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에 크게 작용하면서 이는 결국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국민의힘이 제주시갑 선거구 전략공천 과정에서 내용을 겪으면서 지지자들의 표심이 분산됐고, 이는 문 당선인의 승리에 도움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정계의 시각도 나온다. 바닥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다수의 현역 도의원의 지원사격 등 탄탄한 조직력도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인 그가 제주시갑 선거구에 당선되면 선거구 지역을 넘어지지 않는 표심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고주의 색채가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제주지역 선거에서는 ‘출신’보다 ‘공약’ 선거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태연기자 ty9456@ihalla.com

높은 인지도에 골목 누빈 ‘정책 선거’

제주시을 김한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원내에 진출했던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제주를 지키고 제주를 미래를 열겠다’는 슬로건 아래 골목 곳곳을 누비는 ‘골목 유세’로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해 왔다.

김 당선인은 한라일보·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KCTV제주방송이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차 여론조사(응답률 14.7%, 표본오차 ±4.3)에서 62%의 지지를 기록하는 등 이번 선거 여론조사에서 계속 선두를 달려왔다.

김 당선인은 특히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등을 지양하고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

위기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인지도를 쌓아왔던 것이 주요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데 이어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당 대표의 제주4·3 추념식 참석과 김 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유세 지원 등 중앙당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유세 활동을 이어온 점도 선거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택배비·물류비 부담 경감 ▷상급종합병원 지정 ▷원도심 벤처타운 조성 ▷교육발전특구 안착 등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더 많은 일자리, 질 좋은 교육으로 창업하기 좋은 제주, 취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 싶다고 밝혀왔던 만큼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중앙정치에서도 목소리를 내 왔던 김 당선인을 통해 제주 여론이 여의도에서 더 언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공약 ‘톡톡’

서귀포시 위성곤

서귀포시민들의 선택은 “더 큰 서귀포”를 만들겠다는 “검증된 일꾼”이었다. 개표 중반까지 앞치락 뒤치락했지만 끝내 ‘3선 국회의원’ 타이틀을 갖게 된 위성곤 당선인이다.

여야 후보가 양자 대결로 맞붙은 서귀포시는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분류됐다. 경쟁이 뜨거웠던 만큼 양당의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서로를 겨누는 공방과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위 당선인은 상대 후보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재선 의원으로 인지도가 있는 위 당선인은 당내 경선 없이 총선 주자로 낙점돼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유세 지원을 받으며 당선 목표를 향해 달렸다. 이와 달리 여당의 경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총선을 눈앞에 두고 겪은 내용의 여파가 서귀포시 선거구까지 미쳤다. 또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드러났고 ‘원팀’ 결성이 뒤늦게 이루어지며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이번에 유권자들이 위 당선인에게 더 많은 표를 던진 데는 전국적인 ‘민생 파탄 정권 심판’ 바람이 서귀포에도 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위 당선인을 향해 “8년 허송세월” 등 상대 후보가 제2공항 이슈를 부각시키며 공세를 폈지만 유권자들 사이에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통령의 제주4·3추념식 불참, 4·3 왜곡·편향 발언 인사 공천 등에 따른 도민들의 ‘4·3 정서’는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와 함께 위 당선인은 제주도 의원 3선을 포함해 20년 가까이 정치인으로 활동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르신,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장애인, 유아·청소년, 여성, 의료, 농업, 문화·체육 등 세대별, 분야별만이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연달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국회로 가서 “서귀포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고 이 점이 유권자들에게 통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아래조성

포토모

화분묘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모,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아래조성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토모,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전조성 / 유라조성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성수 2~7년생(포토모,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팥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 감귤 무병묘 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 보정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토모, 화분묘 분양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행사판매 가능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골고리

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골고리 작업세트 구성

8.5cm 골고리 + 3cm 인파고정판 + 인파밴드 = 골고리 작업세트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골고리'가 있습니다!

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2. 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골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